

시끌벅적 e-스타



MBC 이정민 SBS 김지연 KBS 김경란 SBS 김주희 전 아나운서 임성민

아나운서+만능 엔터테이너 '아나테이너'

'절제되고 딱딱한 이미지의 아나운서의 색다른 모습'

아나운서는 더이상 딱딱한 뉴스 전달자가 아니다.

최근 2005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 SBS 김주희 아나운서의 과격적인 섹시 댄스 동영상 인터넷에서 화제다.

한 방송사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한 김 아나운서는 가족 자켓과 핫팬츠를 입고 매혹적 댄스를 선보였다.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 공개되자마자 네티즌들이 순식간에 퍼나르면서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 순위에도 올랐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단순한 관심 이상이다. "절제되고 딱딱한 이미지의 아나운서의 색다른 모습을 봤다"는 네티즌과 "아나운서가 연예인인가"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네티즌들의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 아나운서의 경우 지난해 7월 아나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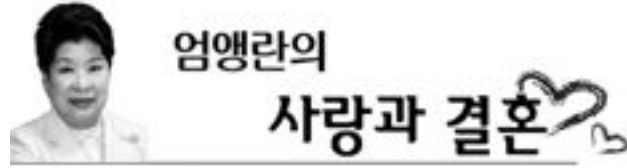
신분으로 맡고 있던 뉴스를 쉬면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출전, 비키니 몸매를 등을 드러내며 인터넷 상에서 아나운서 정체성 논란에 휩싸였다.

김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자라는 고정적 이미지를 벗어나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아나운서들이 잇따르고 있다.

MBC 이정민, KBS 김경란, SBS 김지연 아나운서 등은 패션 화보를 촬영했고, 노현정, 강수정, 박지윤, 백승주 아나운서 등은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다.

아나운서는 이제 아나운서와 만능 엔터테이너를 합친 '아나테이너'로 불려도 될 정도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⑤ 궁합이 인맞는다?

흔히들 연애나 특히 결혼상태를 판단할 때 일반적인 체크리스트인 외모, 학력, 직업, 가정환경, 종교 등 외에 '궁합'이라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궁합'은 우리 조상들의 정신적인 유산이기도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일종의 '미신'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 신세대 할 것 없이 결혼을 앞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궁합을 궁급해 하고 또 그 결과를 크게 염두에 두는 경향은 여전한 듯 하다.

또 자의든 타의든 일단 궁합을 보고 나면 누구에게나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마음을 흔드는 것도 사실이다.

위한 한 편이었다. 운명은 자신이 할 나뉘므로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것이기에 절대적으로 신봉해서는 안된다.

부모세대는 특히 이런 결과에 더 수용 또는 맹신하는 경향이 짙다.

현명한 젊은이라면 부모세대에게서 좋은 점만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이자 전환점인 '결혼' 상태의 선택을 주술적이고 예언적인 점괘에 의존한다는 것은 현세대의 지혜가 아니다.

합리적인 사고로 준비하는 자세를 취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가져야 한다. 총망받는 젊은이의 미래를 몇 백년 전에 쓰여진 비과학적인 예언서나 주술 기준에 맡길 수는 없다.

자기 의지를 존중하라

특히 신년이 되면 잘 사귀던 연인이나 결혼을 앞둔 커플이 새삼스럽게 토정비결이나 궁합을 보고는 서로의 관계에 대해 그리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 웬지 모르게 트러블이 이어지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연인이나 반평생의 짝을 찾고 정하는 일이라면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첫인상 보다는 진중한 상대의 파악과 생활의 경험에 필요하며 외모보다는 깊은 내면과 품성을 들여다 보는 것이 중요하듯이 생사로 접을 보는 '궁합' 보다는 서로 충분한 대화와 다양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솔직하고 냉정하게 서로를 맞대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토정비결이나 점술, 궁합 등에 더 이상 의지하지 마라. 자기 의지를 존중하라. 생사의 길흉화복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 토정비결이란 책도 또한 신성해서 도를 통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재미로 보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으나 그 결과를 연애나 결혼 상태를 선택하는 절대기준으로 삼는 것은 참담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사는 젊은이로서 일종의 '모순'된 사고방식이라고도 말하고 싶다. 혹 궁합의 결과가 상대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평가나 사랑하는 감정을 누르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함께 진지하게 평생을 함께 할 만한 이가 못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에도 유념해야 한다.

굳이 필수사항으로 넣을 필요가 없으며, 또 부담 없이 보았을 경우 굳이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욱 진밀감으로 발전시키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서로 더욱 개선하고 노력하라는 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곧 '궁합'이다.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www.daksclub.com) 문의 : 1588-6665 (닥스클럽(주) 대표컨설턴트)



46. 2007년 정해(丁亥)년을 맞아 유통가에서는 동물 마케팅이 활발합니다. 특히 올해는 600만 번에 한 번 돌아오는, 재복이 넘치는 이 동물의 해로, 평생 만나기 힘들다는 속설 때문에 유통업계 등에서는 이 동물을 내세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저출산 추세에서도 출산 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지신 중 가장 마지막 동물은 무엇일까요.

- ① 쥐 ② 소 ③ 호랑이 ④ 돼지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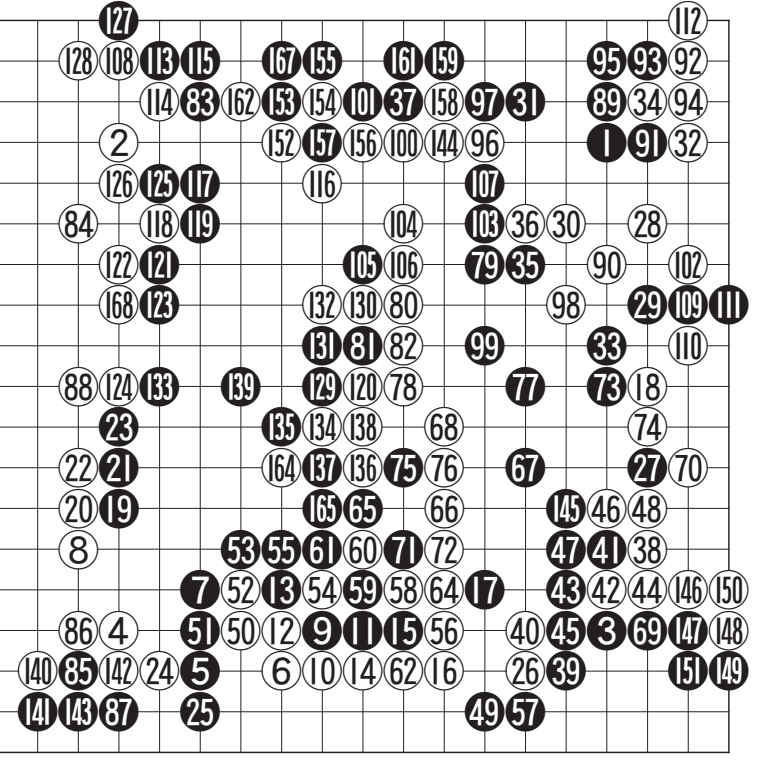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삼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쿠키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1일(음 1월 23일 乙丑)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바둑소식: 작전의 승리 총분(1~168) 백 김지은 5단 (해남군) 흑 김태현 5단 (목포시)

김지은 5단이나 김태현 5단은 최근 몇년동안 아마추어대회를 석권하고 있는 여류바둑계의 최정상급이다.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갖춘데다가 명지대학교 바둑학과에서 실전은 물론, 이론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서 앞으로 여류바둑계의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된다.

바둑소식: 윤준상, 국수전서 이창호 제압

윤준상 4단이 10일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제5기 국수전 도전5번기 제1국에서 이창호 9단에게 173수 끝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English (Actually, that was the first time...), Japanese (あんまり無理(むり)すんなよ), Chinese (鸞羹我糊忙嗎?), and Korean (快刀亂麻 (쾌도난마)). Each column includes a lesson, dialogue, and vocabulary.